



[제21대 대선에 임하는 전북도당에 묻다]



지역 발전과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 위해 일자리 확대 필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했다. 그로부터 넉 달 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됐다. 우리나라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두 번째 장미 대선을 치르게 됐다. 이에 전북권역대학신문사 기자단(국립군산대신문, 우석대신문, 원대신문, 전주교육대신문, 전북대신문, 전주대신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북도당과 전북 지역, 그리고 청년을 중심으로 질의를 나눴다. 답변 순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호 순이다. <엮은이 밝힘>



▲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



▲ 국민의힘 전북도당 청년수석부위원장 신승옥

Q1. 최근 전북의 청년 인구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20대의 순이동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이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북 청년 인구 유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해결책이 있다면 함께 듣고 싶다.

A. 더불어민주당 | 큰 틀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청년 인구 유출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경제 성장률이 높지 않아 전체적으로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일자리도 수도권 중심이라 지금 전북은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사회로의 전환은 늦었지만, 세계가 탄소 중립 체제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해 도약해야 할 것이다. 전북이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를 풍부하게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인 만큼, 지리적 요소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A. 국민의힘 | 전북 청년 인구 유출의 근본적 원인은 일자리에 있다. 일자리가 없으면 당연히 청년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난다. 주거나 복지 등의 요소도 결국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비로소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전북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우량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이미 전북은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이다. 이 잠재력을 활용해 탄소 산업과 수소 산업, 정읍시의 바이오, 스마트 농생명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규제 개혁을 할 것이다. 기업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남게 될 것이고, 주거와 복지, 그리고 지역 경제 전반이 자연스럽게 살아날 것이다. 청년들이 떠나야 하는 곳이 아닌 머물고 싶은 전북을 만들겠다.

Q2. 전북에서 성장한 청년이 정착하고 다른 지역 청년이 이곳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전북의 장기적

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교통은 수도권과 연결성이 부족해서 청년이 전북 선택을 고민할 때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청년층의 전북 정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A. 더불어민주당 | 청년들을 이곳에 남게 하고, 이들을 불러오는 것은 전북의 많은 정치인이 짊어진 무게다. 당연히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산업적 요소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청년들이 전북을 선택할 것이다. 문화적인 요소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전북에 왔을 때 "재미있고 유쾌하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문화와 풍토를 변화시켜야 이곳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남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수도권과의 연결성은 대표적으로 철도를 꼽을 수 있는데, 현재 전라선 복선화를 추진하고 있다. 짧은 시간 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4년 내 외로 케이티엑스(KTX)를 비롯해 에스알티(SRT) 열차까지 더욱 많은 배차를 이끌어 내겠다.

A. 국민의힘 | 전북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 시절부터 지역 주요 산업과 연관해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다른 지역의 청년들도 전북을 선택할 수 있게 손색없는 문화, 여가적인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문화·여가 공간과 청년 커뮤니티 공간 등이 동시에 잘 갖춰진 곳이어야 한다. 교통 문제는 전북의 교통 중심지가 익산시나 보니, 산업이나 인구가 집중된 전주시에서 비효율적인 노선이 발생하곤 한다. 최근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특별법 등 관련 내용을 개정해 도로법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교통편이 잘 마련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Q3.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주로 대기업 중심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에 터를 잡고 있는 대기업이 많지 않다. 물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발전

도 필요하지만, 앞서 질문한 청년들의 정착이나 유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기업 유치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더불어민주당 | 대기업도 이익단체이기에 이들을 끌어올 유인책이 필요하다. 알이(RE)100 산업단지를 새만금에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산업 단지가 구축되면 대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이것은 차기 정부와 전북 정치권이 뭉쳐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농협중앙회나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 국민의힘 | 우리는 다른 정당에 비해 대기업과의 유대 관계가 상대적으로 돈독하다고 생각한다. 전북은 기회의 땅이기에 대기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마련됐다. 하지만 투자 자원이나 인력 등과 같은 기반은 부족하다.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의 유대 관계를 적극 활용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협조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다방면적으로 노력하겠다.

Q4. 전북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이다. 이번 대선에서 전북의 농민들을 위해 준비한 정책이 궁금하다.

A. 더불어민주당 |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 제법인 '농안법'을 제안한다. 전북의 산업구조를 보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다.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농민의 비율이 크다는 이야기다. 농민들의 생존은 농산물의 가격에 달려있다. 그러나 자연재해 등의 원인으로 한 해 농사가 망하고, 경제적 원인으로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통해 농민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현재 재난안전기본법에는 피해가 발생하더라

도 생계 구호와 복구 수준으로만 지원한다. 이는 충분한 지원이 아니기에, ‘농업재해대책법’을 구축해 농민들의 피해액 중 60~70%를 지원하여 차년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A. 국민의힘 | ‘전북 맞춤형 산업지구 조성 계획’을 제안한다. 국민의힘은 전북의 강점을 살려 농생명 산업의 집적화와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해 농민이 모두 잘사는 전북을 만들 것이다. 이미 준비된 ‘전북맞춤형 산업지구 조성 계획’을 통해 남원시 ‘에코스마트팜 산업지구’, 순창시 ‘미생물농생명산업지구’, 고창시 ‘사시사철 김치특화 산업지구’, 김제시 ‘논콩산업 거점지구’, 마지막으로 진안군에는 ‘홍삼한방산업 진흥지구’ 등을 설립할 것이다. 이를 통해 농생명 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설립해 청년 인재를 키우고, 지역 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동시에 높일 것이다. 전북의 농어민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다. 국민의힘은 전북을 살리는, 농생명산업의 확실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Q5. 전국에서 장애인과 고령층 등에 대한 복지혜택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수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홍보 방식이나 복잡한 신청 절차로 정책이 실질적 수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A.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실행됐던 장애인들의 ‘사회적 공공형 일자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당시 정책에 대해 설명하자면,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게 직접 본인들의 권리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에 취약한 장애인들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설명을 듣는 장애인들도 더 많은 복지와 정책을 알 수 있기에 사회적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다. 서울시에 서 진행했던 사업이 전국에서 강화되면 장애인들이 직접 장애인들에게 알려주다 보니, 눈높이에 맞춰 더 잘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A. 국민의힘 | 우선 장애인 정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장애인이 직접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현장 체감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불편한 홍보 방식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복잡한 신청 절차를 무조건 간소화하는 것은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도울 것이다. 이 외에도 우리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준비했다. 우선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현 765명에서 30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다. 지역 장애인보건센터도 현 19개소에서 7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산부인과를 확충하고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Q6. 전북의 오랜 숙원이었던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가졌는지 궁금하다.

A. 더불어민주당 | 공공의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연내 통과’이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올해 안에 반드시 공공의전원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다만 현재 의협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고자 한다. 증원이 아니다. 전북은 다른 지역과 달리 원래 있던 자원과 인원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년에 관련 법이 통과되면 차기 정부 안에 공공의대가 우리 곁에 와있을 것이다.

A. 국민의힘 |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의료 소외지역이

나 취약지역에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대 사안을 막론하고 의료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의료개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료개혁의 포문을 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쉬이 예측할 수는 없다. 의료 인력이 확대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의대를 설립하지 말자는 의견은 아니나, 의료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Q7. 2028년까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조성될 예정이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해수를 적극적으로 유통하거나, 과거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던 갯벌을 복원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없나?

A. 더불어민주당 | 새만금이 개발된 지 올해로 36년 정도 됐다. 만약 그때로 돌아가 새만금 개발 사업을 하겠느냐고 물으면 하지 않겠다고 말할 것이다. 현재 육지화돼 있는 부분을 다시 갯벌화하라고 하면 더 복잡해 질 것이니, 육지 부분은 당초 목적대로 개발해야 한다. 36년 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방조제로 막아놓은 부분에 해수를 유통한다면 수질이나 각종 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매립되지 않은 곳에 대한 고민이 남았는데, 개발하지 않는다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쪽의 저항이 거세겠지만, 환경단체는 환영할 것이다. 어떤 선택이든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큰 틀에서는 해수 유통을 통해 수질 개선을 달성하고, 육지화된 곳은 연안을 따라 수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A. 국민의힘 | 새만금에 수변도시를 포함한 산업단지나 기타 시설을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폐수 처리’라고 알고 있다. 이번에 이차전지 기업을 유치했음에도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마땅치 않아 개발에 속도가 더디다. 수변都市는 고사하더라도 폐수 처리 시설을 비롯한 각종 기반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의 새만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사회적 합의의 문제인데, 개발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발전하겠지만 환경은 불가피하게 파괴된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미 개발이 된 상황에서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그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허물기보다는 원래 있는 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Q8. 전북이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 그러나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운영에서 드러난 조직 구성, 예산 확보, 인력 배치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만약, 전북이 올림픽 유치에 최종 성공한다면, 어떤 보완 전략과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A.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로 들어서면 하계 올림픽 유치를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올림픽은 전북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전국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올림픽 진행 시, 모든 경기를 하나의 도시에서만 해야 했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입장을 바꿔, 전북에도 기회가 온 것이다. 서울시가 비록 후보에서 탈락했지만, 서울시의 경기장을 이용하는 등 최대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가 필요한 곳에 힘을 쏟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A. 국민의힘 | 하계 올림픽 유치는 전북만의 힘으로 쉽지 않은 도전이다. 유치에 성공한다면 이는 결코 전북만의 축제가 아닌, 전국이 함께하는 국가적 축제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준비 단계부터 우리나라 전

체가 결집하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적극 도울 것이다. 특히, 새만금 잰버리에서 드러난 문제를 철저히 복기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조직, 그리고 촘촘한 계획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함께해 나가겠다.

Q9.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이후, 공항 건설과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은 새만금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있는데, 해당 공항 역시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된 조류 서식지와 짧은 활주로 길이 문제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 개항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가?

A. 더불어민주당 | 현재 문제점으로 크게 꼽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활주로 길이다. 지금은 저가 항공 기종의 활주로 길이다. 유럽이나 남미로 가는 비행기를 띄우려면 활주로를 늘려야 한다. 투자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부가 계속 길이 연장을 막았으나 이번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사고로 활주로 길이를 모두 연장하는 방식을 취할 전망이다. 우선 활주로 문제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길이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다. 철새 부분은 인천공항과 같은 다른 공항들의 매뉴얼을 참고해 철저히 규정해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A. 국민의힘 |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공약에서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을 제안한 상태다. 따라서 미연의 사고 위험성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부차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새만금국제공항이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규모와 위상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때 문제도 이를 전문적으로 쫓는 업무가 있다고 알고 있다. 국제공항인 만큼 그 위치에 맞게 업무가 적절히 배치돼야 위험성이 줄어들 것이다. 단순히 공항을 개항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도민이 적극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도민들도 잘 이용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하고 국민의힘도 최선을 다하겠다.

Q10. 앞으로 약 3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전북도민 특히, 청년세대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계획이 궁금하다.

A. 더불어민주당 | 전국 경제 성장을 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가 그 역할을 공고히 해왔다. 우리 청년이 전북에 대한 애정이 있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곳에서 정착해 일하고 즐겁게 살아가려면 민주당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전북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주시기를 바란다. 민고 투표해 주신만큼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A. 국민의힘 | 전북은 다양한 정치 경험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시면 아름다운 관광자원과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전북의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전북에 국민의힘을 영입해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해 주시면 좋겠다. 또한 청년들이 지역과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